대림 제3주일(자선주일)
제1독서 : 스바 3, 14-17
제2독서 : 필립 4, 4-7
복 음 : 루가 3, 10-18

숲정이

"주님께서 오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필립 4, 5)

강 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인근 신부/영등동 보좌

자선은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좋은 일을 한다는 단순한 의미뿐만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배반한 인간은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의심합니다. 남자는 '하느님이 저에게 짝지어 주신 저 여자가 저를 죄 짓게 했습니다.'라고 자기 죄를 여인에게 떠넘기는 파렴치함을 보였습니다. 형제를 죽인 카인의 살인은 이 세상을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땅으로 만들게 했습니다. 바벨탑을 세우고 우상을 섬긴 그들은 민족이 분열되고 언어가 뒤섞이는 혼란의 세상이 되게 했으며 이 혼란은 죄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인류 역사의 큰 줄기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약 성서에서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다를바가 없습니다.

미, 소 냉전의 산물인 분단된 조국의 현실에서 아직도 통일은 요원하며 수십만명의 젊은이들이 최신무기로 무장한 채 서로를 원수로 삼아 핏발스런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나라의 안정을 위해 그들의 대권 야망을 포기할 수 있는 민족애가 있는가를 의심케하고 추악한 본심을 드러내는 야누스의 얼굴들을 보면 더욱더 인간 원조의 범죄 사실을 확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 실천은 죽어버린 인간성과 마비된 인간의 아름다움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이며 힘입니다. 멸망의 길로 걷는 인간이 구원의 길을 걷게 하는 방법이 사랑이기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랑의 극치인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의 길을 인간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인들은 소극적으로 교회 안에서의 작은 외침만으로는 점점 더 깊어 가는 인류의 중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내가 현재 서있는 이곳이 사랑의 현장이고 역사의 땅임을 생각하면서 더 힘차게 뛰어야 합니다.

소 리

돌아오지 않는 찬에게

어디에 가 있니, 찬아. 날씨가 차구나. 지난 6월, 학교로부터 너를 상담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지. 가출을 여러 번 했고 폭력서클에 가담한 것 같다는 정보를 가지고 너를 처음 만났을 때,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눈망울이 유난히 초롱초롱하고 예쁘장한 모습이더구나. 처음에 나는 네가 폭력서클의 일원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연락처도 알려주질 않았지.

2학기가 시작되고 너를 만나러 학교에 갔을 때 너는 다시 집을 나갔더구나. 그제서야 너에게 연락처를 적어주지 않은 걸 후회했단다. 부모 없이 친척집에 살면서 이야기 나눌 사람이 없다고 했지?

우리 어른들이 잘못이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너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해 줄 어른이 없었으니 얼마나 외로웠겠니? 너희만할 때는 감싸줄 울타리가 필요한 시기인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문제청소년으로 낙인찍어 경계하며 격리시키려 했으니 너희는 너희대로 방어를 할 수밖에 없었겠지.

요즘 어린 왕자를 읽고 있는데 전에는 눈에 띄지 않던 구절이 내 마음을 찌르는구나. 장미꽃이 어째서 아무 쓸모도 없는 가시를 그렇게 힘들여 만드는지….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소용도 없는 것 같지만 꽃들은 그 가시가 자신들을 지켜주는 무기라고 생각한다는 것. 세상이 따뜻하다면 너희는 가시를 만들 필요가 없겠지. 중학교까지는 졸업해야겠다고 하더니 어디를 방황하고 있는 거니?

찬아, 빨리 돌아와서 우리 마음을 열어놓고 얘기 한번 해보자꾸나.(덕)

숲정이 산책

성서의 오솔길

아가(雅歌, The Song of Songs)

박찬길 신부/사목국장

성서를 읽다가 이 소책자를 만나게 되면 당황하게 된다. 제목 아가(雅歌)는 '맑고 깨끗한 노래'라는 뜻인데, 그 내용은 젊은 남녀의 사랑을 묘사하고 있다. 때로는 그 묘사가 너무 사실적(寫實的)이어서 이런 책이 어떻게 영감을 받는 성스러운 책으로 꼽힐 수 있는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은 남녀의 진실한 사랑 속에 영원한 진리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느님과 맺어 온 관계를 남녀의 애끓는 사랑의 관계로 묘사한 것이다. 기원전 8세기부터 예언자들은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혼인(婚姻)으로 설명했다. 강제나 공포로 맺은 관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임을 강조하였다(호세 2, 4. 21-22 ; 예레 31, 3 ; 에제 16장과 23장 참조).
아가(雅歌)의 저자가 수집한 시가(詩歌)들은 하느님과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의 번뇌와 불행을 노래하며 하느님과 일치하게 된 깊고도 충만한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 피상적으로 이 성서를 읽노라면 속된 애정을 읊은 연가로 보이겠지만 아가의 내용은 예언서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글이다. 아가(雅歌)를 예언서 계열이라고 보는 것은 아가(雅歌)가 메시아 시대가 오면 하느님과 하느님 백성 사이에 맺어질 새롭고 친밀한 관계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하느님과 교회의 관계 말이다.

교회는 아가(雅歌)의 시상(詩想)을 하느님과 성모 마리아의 관계에 인용하기도 한다. 마리아는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시기 때문이다. 또 하느님과 개개인의 영혼 사이의 관계에도 인용한다. 하느님과 우애를 맺은,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은총을 입어 사는 영혼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볼 때, 아가는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하느님은 처음부터 성삼위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며, 이 완성이 곧 천국이다.

성서의 샘

눈을 뜨게하소서

김현숙/노송동 성당

그동안 나는 성서를 읽으면서 그안에 있는 주님의 가르침을 깨우쳐야 한다는 부담감이 암암리에 작용하고 있음을 느꼈다. 내힘으로 내생각으로 성서의 말씀을 깨치려고 노력할 때 말씀은 딱딱할 활자일 뿐이었다.

어느날 마태오 복음에서 눈먼소경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자비를 베풀어주시기를 청했을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대목을 보게 되었다. 눈을 뜬다는 것이 무엇일까. 모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밝히 보는 것이라면 나는 정말 제대로 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드러나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못마땅한 세태를 비판하기만 했지, 어려운 상황속에 숨은 속사정이나 긍정적인 면을 그냥 지나침으로써 원래 지닌 선한 모습을 볼 수 없게 된 것이나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내 생각과 주관을 고집하며 주님의 말씀도 있는 그대로보다는 내 의지에 맞춰 생각하다보니 성서말씀도 알아듣기 힘이들고 부담스러운 것이 될때가 많았던것같다.. 그런데 성서속의 눈먼 소경들은 자기들의 계획이 없이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만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자 소경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뜨게해 주셨다. 이것을 깨달았을때 나는 마음이 밝아지는 것을 느꼈다. 바로 이거구나, 주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면 나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위해 내 고집스러운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서를 읽다보니 조금씩 생각이 바뀌는 것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듣게 되었다. 이제 성서 읽는 기쁨을 새롭게 맛보게 된다. 눈먼 이들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제 마음의 눈을 뜨게해 주소서.

전주문구센터
NEO DADA
1층 악세사리 팬시
2층 학용품 사무용품 컴퓨터소모품
3층 화방용품, 제도, 측량전문용품
전북대앞 본점
원 수 관(야고버)
심 경 이(마리아)
☎ 77-0079, FAX 77-0720

축 ! 개원
우리가정의학과의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내과, 소아과, 부인과,
이비인후과, 물리치료실
원장 이 기 정(보 나)
박 영 배(스테파노)
봉동터미널앞 신협 2층
☎ (0652) 261-7575

이지문구 유통 상사
에버그린
모 나 미 전북대리점
팬시, 문구, 수입필기구 전문 도매 유통
단체, 납품 및 문구점 개업상담 환영
대표 : 정 상 남(요한)
이사 : 전 현 배(다두)
군산시 월명동 18-23(명산동 사거리)
☎ (0654) 468-8894, 63-5048

(주) 청풍 공기청정기
세계 최초 국제발명품 대회 환경부문
7회 연속 금상 수상 • 담배연기, 냄새,
세균, 곰팡이균 등 오염물질 완전분해,
쾌적한 생활공간 • 무소음, 무휠터,
음이온(-) 산소발생 공기청정기
조홍기(아뽈리나리스)
이현자(세 시 리 아)
☎ (0652) 251-0022

잠 깐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북한형제돕기 성금접수 및 전달내역

올해는 북한형제들을 위한 모금운동이 나라안에서 계속되었고 교회도 성금모으기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 교구에서도 지난 6월부터 11월 7일까지 실시된 북한형제돕기에 61개본당과 31개단체, 42명의 개인이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셔서 146,951,120원이라는 많은 성금이 모아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금이 모아진 것은 아마도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우리 교구 공동체의 사랑과 정성이 표현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신자분들께서 모아주신 성금중 133,791,820원은 7월과 10월에 북한동포돕기 전북본부에 전달되었고, 10,000,000원은 6월에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로 각각 전달되어 북한형제의 배고픔을 덜어주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3,159,000원은 저금통 제작과 송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신자분들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아끼고 북한 형제들을 생각해 주신 뜨거운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가난한 이웃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형제들을 돕는데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구 · 제 단체 소식

1. 군산사회교정사목 월례미사 : 12월 15일(월), 나운동 성당
2. 사제아버지 모임 : 12월 15일(월), 오전 11시, 전동성당 충연관
3. 사제어머니 모임 : 12월 20일(토), 오후 2시, 전동성당 충연관
4. 성직자 묘지미사 : 12월 15일(월), 10시 30분, 치명자산 성직자묘지
5. 성서교실 졸업미사 : 12월 19일(금), 오전 11시, 윤호관
6. 무주구천동 리조트미사 : 매주일 오전 6시 30분, 왕성가든여관
7. 천호 피정의 집 피정 : 12월 23일(화)~25일(목), 지도 - 유영봉 신부
   주제 - 하느님 체험, 기도생활
8. 이사정신부 주소 변경 : Pfr. Raphael Lee,
   St. Ulich Seuzacher str. 1
   8400 Winter thur
   Switzerland TEL. 001-41-52-212-0618
9. 송천동 성당 전화번호 변경 : 주임신부 254-8560, 보좌신부 254-8561

전주 가톨릭 신학원 성서부 학생 모집

1. 성서교실반 : 1998년~1999년(2년과정)
   자격 : 원하시는 분 모두다(1차 졸업자도 재신청 가능함)
2. 말씀나눔반 : 1998년~1999년(2년과정)
   자 격 : 성서교실반을 수료하신 분들
   접 수 : 1차 - 1997년 12월 11일~19일
   2차 - 1998년 2월 20일~3월 5일 등록금 : 5만원
   접수처 : 윤호관 소재 전주 가톨릭 신학원 (0652) 74-5879

직 원 모 집

1. 모집 부분 : 사무직원(남) 2. 지원 자격 : 4년제 정규 대학졸업자 및 1998년도 졸업예정자, 30세 미만, 병역 필 3. 제출서류 : 자필이력서(사진부착, 연락처명기), 세례증명서, 본당 신부 추천서,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각 1통 4.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논술고사 5. 접수마감 : 97. 12. 27
6. 접수 : 전주교구청 사무처(85-0041)
7. 기타 : 면접 및 논술고사 일시는 개별통보함

천주교 전주교구청

숲정이성지어린이집 원 아 모 집

대상 : 24개월~7세까지
기간 : 12월 10일부터 선착순
주소 : 덕진구 진북2동
동국아파트내
전화 : (0652) 71-1905
원장 : 문규현 신부

민 속 떡 집
맞춤떡 · 폐백전문
이 종 술(미 카 엘)
박 양 례(미카엘라)
☎ 84-4427
전주교옆 남부시장 입구

서 림 모 피
'98 모피 신상품 전시판매 개시
혼수, 효도 상품 "초특가 판매"
모피의류 수선 · 개조 및 세탁 상담
익산시 어양동/익산 수출자유지역내
전시장 연락처 (0653) 833-2111~4

하얀 눈꽃 축제
금구 K-랜드 눈 썰매장
주일학교 복사단 단체 할인
윤 병 순(요 셉)
김 혜 경(레지나)
문의전화 (0658) 42-0365
금구 목우촌 맞은편

LG 에어컨 예약
98년 신제품 15% 할인+10개월 무이자 할부
기본 설치비 무료+ 사은품(선풍기)
할부 대금은 4월부터 불입
원 승 연(도밍고)
☎ (0652) 241-2000

▣ 서전주지구 본당소식 ▣

삼천동

주임신부 225-0397 사 무 실 225-0396 주임신부 오 성 기
F A X 222-4954 수 녀 원 226-3487 사목회장 심 성 택

⊙ 파소비 추방, 국산품 애용‼

1. 모임 : ① 바오로회, 베드로회 – 교중미사 후
② 제대회 – 17일(수) 전 10시
③ 울뜨레야 – 21일(주일) 교중미사 후
2. 자선 주일 : 이웃사랑 실천주간, 2차헌금 있음.
3. 베드로회 창립모임 : 45세이상 61세이하의 남성신자 누구나 입단바람.
4. 호스피스 봉사자 모임 : 수강생 오늘 교중미사 후
5. 판공 일정 : 15일(월) – 삼천구역, 16일(화) – 대우구역
17일(수) – 광진구역, 18일(목) – 우성구역
19일(금) – 한강, 하이츠, 신일구역
20일(토) – 중 · 고등부 ※ 후 3시~9시
6. 합동 고백성사 : 15일(월) 후 7시~9시
7. 사랑실천 : 사랑의 다리, 성소후원회에 입회와 협조바람.
8. 애령회 기금마련 : 판공성사때 봉헌바람.
9. 대림절 권고사항 : 10가지 실천사항 노력바람.
10. 특별 헌금 : 금주 봉헌자 – 4명 390,000원
11. 교무금 월납제 : 교무금 신립과 완납을 부탁드립니다.
12. 금주 전례 : 해설 – 문승욱, 독서 – 이송렬(가브리엘)부부
봉헌 – 허기남(안드레아) 가정
13. 차주 전례 : 해설 – 김학덕, 독서 – 임태형(라르고)부부
봉헌 – 권오형(도미니코) 가정

☐ 지난주 봉헌금 : 1,567,120원 ☐ 교무금 : 7,852,000원

서신동

주임신부 74-9261 사 무 실 74-9260 주임신부 오 현 택
F A X 74-9260 수 녀 원 74-9262 사목회장 유 춘 웅

⊙ 예비신자 배가운동 및 쉬는 교우 회두를 위해서 우리 모두 적극 참여합시다! ⊙ 오늘 : 자선주일 2차헌금, 사제양성후원회비 납부일

1. 금주 모임 : 울뜨레야 – 공식미사 후, 4회의실 ; '97 결산보고 및 '98 사업계획 협의 2. 주간 모임 : 자모회 – 18일(목) 전 10시, 유아실
3. 차주 모임 : 꾸리아 – 공식미사 후, 지하성당
※ 차주 – 교무금 납부일, 교무금과 부지헌금을 정리바람
4. 구역미사 및 판공 : 16일(화) – 7, 14, 15구역
17일(수) – 8, 9, 13구역, 18일(목) – 10, 11, 12구역
※ 기간중 저녁미사로 변경 – 후 7시 30분(19일까지)
5. 병자 판공성사 : 16일(화) 전 10시, 신부님
6. 영세식 : 23일(화) 후 7시 30분(전 10시미사 없음)
※ 영세자 특별교리 – 19일(금), 20일(토), 22일(월) 후 7시 30분
※ 영세자 피정 – 21일(일) 후 3시~5시, 성당
7. 전입가정 환영 : ① 김점옥(올리바), T. 72-5606, 동아A 103-1403 ② 오주정(젬마), T. 253-2949, 성원A 103-1404 ③ 안주찬(바오로), T. 255-2872, 10구역 2반 8. 부지헌금 신입 감사! : 주진용 20만, 김미경 10만, 안태연 100만, 김기상 10만, 청년공동체 209만, 성모회 100만 합계 – 278,248,180원
9. 독서 : 금주(새벽) – ① 한병성 ② 김명순, 차주 – ① 박영호 ② 김영숙
(공식) – ① 이명규 ② 위영효, 차주 – ① 김경법 ② 조경자
10. 미사 안내 : 금주 – 성조의 모후Pr., 차주 – 순교자의 모후Pr.

☐ 지난주 봉헌금 : 1,554,430원 ☐ 교무금 : 6,438,000원

용머리

주임신부 88-3872 사 무 실 87-0441 주임신부 현 유 복
수 녀 원 81-0441 사목회장 이 규 세

⊙ 기뻐하며 외쳐라.
너희가 기릴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로다.
⊙ 새 성전 신축 위한 묵주기도 봉헌 : 소계 – 7,826단
누계 – 572,727단
⊙ 성령세미나에 애쓰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1. 모임 : ① 송년 테니스 – 오늘 후 3시, 해성학교
② 등산 – 오늘 1시 30분, 만덕산
③ 울뜨레야 – 다음주 공식미사 후
2. 성탄 판공 : 19일(금) 하루입니다. 준비하세요.
3. 연총 친목회 : 21일 후 2시
※ 레지오 단원은 모두 참석하시고 전신자 참여 바랍니다.
4. 밀린 교무금, 신축헌금 정리 바람.
5. 금주 전례 : 해설 – 곽명실, 독서 – ① 이강윤 ② 국혜원
6. 차주 전례 : 해설 – 정희수, 독서 – ① 이종근 ② 강정자
7. 청소 봉사 : 전신자

☐ 지난주 봉헌금 : 953,100원 ☐ 교무금 : 1,946,000원

화산동

주임신부 221-9843 사 무 실 221-9842 주임신부 이 성 우
F A X 221-9842 수 녀 원 225-3675 사목회장 서 동 호

⊙ 기뻐하며 외쳐라.
너희가 기릴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로다.

1. 금주 모임 : ① 요셉회, 안나회, 반석회, 자모회 – 낮미사 후
② 총회 – 낮미사 후
③ 레지오 연총 친목회 – 후 2시
※ 자선주일 2차헌금 있음
2. 성탄 성가연습 : 16일(화) 후 8시
3. 판공성사 : 17일(수) 전 10시 30분 – 노인 판공성사
후 7시 30분 – 전신자 판공성사
20일(토) 후 4시 – 중고등부 판공성사
※ 손님 신부님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미사 전후에 판공성사를 나누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 차주 모임 : ① 성모회, 양업회 – 낮미사 후
② 상지원 봉사 – 낮미사 후
5. 코끼리 저금통을 가져와 주세요.
6. 청소 봉사 : 20일(토) – 능하신 정녀Pr.
7. 폐품 정리 : 20일(토) – 은총의 중개자Pr.
※ 폐품을 가져오시기 어려운 가정은 사무실에 접수 바람.
8. 금주 전례 : 새벽 – 유희정, 낮 – 홍정의, 저녁 – 김영종
9. 차주 전례 : 새벽 – 곽순옥, 낮 – 최정순, 저녁 – 정인자

☐ 지난주 봉헌금 : 902,750원 ☐ 교무금 : 3,232,000원

효자동

주임신부 223-3824 사 무 실 223-3821 주임신부 서 정 현
수 녀 원 223-3822 F A X 223-3821 사목회장 임 해 건

⊙ 오늘은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기금의 신입을 받는 날입니다.
※ 어려운 때일수록 이웃을 생각하고 나의 몫을 나누는 것이 곧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일 것입니다.

1. 금주 모임 : ① 안나, 요셉회 – 14일(일) 9시미사 후
② 자모회 – 16일(화) 전 11시
③ 사회복지분과회의 – 17일(수) 전 10시
④ 사목회 – 19일(금) 후 8시
2. 차주 모임 : ① 울뜨레야 – 21일(일) 후 8시
② 꼬미시움 – 27일(토) 후 3시
3. 가정 방문 : 16일(화)~18일(목) 신일A, 우체국주변
4. 성탄 합동 판공성사 : 22일(월) 후 7시부터
※ 판공성사 – 매 미사전후로 보실 수 있습니다.
5. 축! 영세식 : 21일(일) 후 3시
※ 집중교리 – 14일(일)~17일(수) 후 7시, 20일(토) 후 7시
6. 안나 요셉회에 선물기증 : 이오환(요한) 감사합니다.
7. 미납된 교무금에 관심을 가집시다.
8. 97년분 성소후원회비를 연말까지 완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축! 파티마의 모후Pr. 주회 1,000차 : 12월 2일
10. 전입가정 환영 : 서영순(젬마), 삼천주공A 106동 205호
11. 다음주 미사안내 및 차(茶) 봉사 : 삼천주공3A 구역

☐ 지난주 봉헌금 : 1,282,960원 ☐ 교무금 : 4,530,000원

효자우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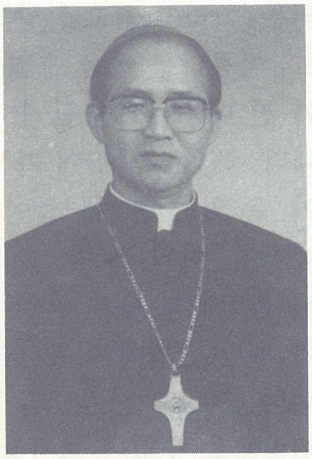
주임신부 221-3712 사 무 실 221-3711 주임신부 김 순 태
보좌신부 226-0443 수 녀 원 223-0715 보좌신부 강 호
F A X 226-1044 사목회장 김 규 완

⊙ 성전 신축을 위한 묵주기도 100만단 봉헌 :
소계 – 4,050단 누계 – 826,345단
⊙ 자선주일 : 2차헌금 실시합니다.

1. 금주 모임 : ① 애령회 임원회 – 공식미사 후
② 구역장, 제대회 – 19일(금) 10시미사 후
2. 애령회 가입과 회비 접수합니다.
3. 초등부 성탄고백성사 : 20일(토) 후 2시~미사 전
※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4. 초청신부님 성탄 고백성사 : 21일(일) 전 9시~12시
5. 합동 고백성사 : 22일(월) 후 7시
6. 레지오 마리애 단원교육 : 15일(월) 후 7시, 소성당
7. 차주 : 울뜨레야, 반회장 준비모임
8. 금주 전례 : 해설 – 이옥희, 독서 – ① 김용만 ② 김은숙
봉헌 안내 – 엄익도, 권혜자 부부
9. 차주 전례 : 해설 – 이한은, 독서 – ① 엄정준 ② 임효정
봉헌 안내 – 김용춘, 김옥자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1,882,210원 ☐ 교무금 : 5,779,000원

97년 성탄 메시지



알몸으로 오시는 하느님 앞에서

1.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도전", "국가 부도 위기" 등등, 최근들어 갑자기 듣게 된 무시무시한 말들로 해서 우리 마음 속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모든 것을 희생해가며 이 한가지는 분명히 이루어냈다고 장담하던 그 경제마저 지금 수렁에 빠져 있고, 우리는 이제부터 그 혹독한 현실을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개인이나 집안이 아니고 한 나라의 살림이 이런 식으로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는 것인가? 우리는 지금의 사태 앞에서 무엇보다도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문제도 따지게 됩니다.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만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나 미래의 불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처방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군사 독재 시대에 만들어진 재벌중심의 개발모델, 거기서 커온 대기업주들의 방만한 경제운영, 은행돈 독식, 정경유착, 부패구조 등 한국 경제의 고질병이 개방시대의 새로운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한꺼번에 터져 나타난 것이라고들 설명합니다. 이 간단한 설명 속에 문제의 원인과 그 책임자가 대충 드러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 역시 책임을 완전히 벗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많은 경우에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그동안 조금 이룬 경제적 성과를 부풀려 선전하는 정부와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 일종의 최면에 걸려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소득 만불 시대에 돌입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에도 가입했으니,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었다는 것이었고 사람들은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달러를 물쓰듯 쓰고 다니며 해외에 가서 온갖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씀씀이는 선진국 어느 나라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을만큼 헤펐습니다. 한벌에 수백만원 한다는 내의와 수천만원 하는

외투, 그리고 최고급 양주가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잘 팔리는 나라가 없다는 것이고, 아름다운 산을 수없이 파헤쳐 만들어놓은 골프장에서는 낮에는 물론이고 해가 진 다음에도 즐길 수 있도록 엄청난 전력을 끌어당겨 불을 밝혀놓는다는 것입니다. 해외 노름판에 가서 수십, 수백만 달러를 탕진하고 다닌다는 사람들의 이야기. 돈 있는 집 자녀들이 외국에 나가 공부는 안하고 오렌지족이 되어 나타났다는 이야기. 마약, 도박, 술, 성 등에 중독되어 자신의 힘만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수가 엄청나게 불어난다는 이야기.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가 백만 단위에 이른다는 이야기. 우리는 그동안에도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정신이 무서운 속도로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과 현상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거덜난 다음에 생각하니, 이러고도 망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도리어 이상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 지금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저질러진 사태에 대한 원인규명과 책임소재 파악 못지 않게, 이 난국 극복의 방도를 찾기 위해서 지혜와 힘을 모으는 일이 중요한 때입니다. 국가적 재난의 극복과 민족 화해의 과업을 함께 떠안아야 할 차기 대통령을 뽑는데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젖혀두고, 이번에도 지연, 혈연, 학연 등등, 맹목적이고 망국적인 감정에 따라 움직인다면, 그것은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크게 그르치는 일에 스스로 공범자가 되는 처신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누구를 선택하느냐보다도 어떤 자세로 투표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습니다. 희망은 최종 당선자 한 사람에게만 달려 있는 것이아니라 국민전체의 의식에 더많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차기 대통령은 나라의 살림 형편을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알리고, 엄청난 규모의 외채를 갚는 길과 그 일정 등,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한 계획을 정확히 마련한 다음, 그 과정에서 국민 모두가 나누어 져야할 고통과 희생이 어떤 것인지를 소상하게 밝히고, 이를 모두에게 호소해서 공감을 얻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엄정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국가민족의 장래를 위해 가장 합리적인 정책이 마련되면, 어떤 이익집단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시켜야 할 것입니다.

한때의 여론조사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후보자 가운데 어느 누구도 국민 절대다수의 표를 얻어 당선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의 집권 이후

국민이 대통합을 이루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걱정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만큼 어려운 과제를 풀기는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원하던 후보자가 아니라도 누가 일단 당선되면, 민주시민으로서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이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비판과 함께 모든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3.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

구세주의 성탄을 맞이하는 이 때, 우리 사회에는 찬 바람이 불고 각자의 마음은 어둠에 휩싸여 있지만, 메시아이신 예수께서는 바로 이처럼 추운 겨울 어두운 밤에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예언자는 구세주의 오심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 속을 헤매는 백성이 큰빛을 볼 것입니다. 캄캄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쳐올 것입니다. 당신께서 주시는 무한한 기쁨, 넘치는 즐거움이 곡식을 거둘 때의 즐거움같고, 전리품을 나눌때의 기쁨같아 그들이 당신앞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이사야 9, 1-2 : 성탄 밤 미사 제1독서에서).

그렇습니다.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요한 12, 46)하신 말씀대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는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의 빛을 통해서만 우리 하나 하나의 잘못 가고 있는 발걸음을 바로잡고, 혜매는 사회 전체도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방향을 찾아 희망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어떤 빛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선, "모든 권세와 영광"(루가 4, 6)을 치렁치렁 감고 있는 왕과, 결국 그런 삶에 조금이라도 더 다가가기 위해서 온 힘으로 달리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는 정 반대로, 구세주께서는 알몸으로 우리 앞에 누워계십니다. 그리고 화려한 궁궐 속에서 수많은 시종을 거느리고 있는 현세의 통치자와는 대조적으로, 마굿간 구유 속에서 짐승들에게 둘러싸여 계십니다. 이런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개인의 삶 속에서나 사회 전체의 분위기 속에 거품처럼 부풀어 있던 허세를 새삼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그 자체로 어떤 웅변보다 더 큰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아 갈까, 또 몸에는 무엇을 걸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거나 곳간에 모아 들이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먹여 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목숨을 한 시간인들 더 늘일 수 있겠느냐? ……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잘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마태 6, 25-34).

구세주의 이런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삶에서 무엇이 참으로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것에 따라 삶의 태도를 바꾸어 나간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겪게 될 어려움은 오히려 각 개인과 사회가 건강을 회복하는데 귀중한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시편작가의 말씀이 마음 속에 늘 메아리치게 해야 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 나의 길을 비추는 빛이오이다"(시편 118, 105).

1997년 12월 14일 이병호

전주교구장 이 병 호 주교